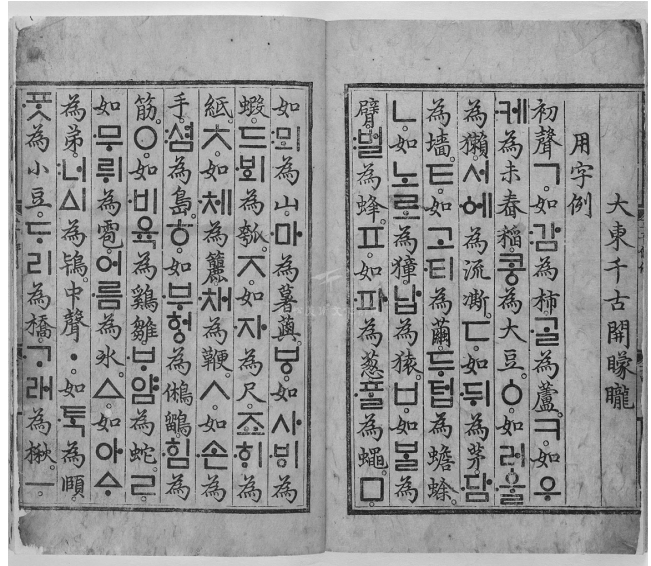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訓民正音)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다. 보통 ‘훈민정음’을 부르는 대상은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어의 표기 체계, 즉 오늘날의 한글을 만들 당시에 불렀던 이름이다.

두 번째는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훈민정음(해례본)』이다. 『훈민정음(해례본)』은 1446년에 간행된 책의 목판본으로, 새로 만든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문자의 음가 및 운용법,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해설과 용례를 붙인 책이다. 해례본에는 세종이 작성한 ‘예의’ 부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분과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 집현전 8명의 학자들이 만든 ‘해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례 서문에는 “계해년(癸亥年)에 우리 전하께서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어 간략히 예와 뜻을 들어 보이시고서 이름 하시기를, ‘훈민정음’이라고 하셨다”고 문자 창제 목적과 취지가 작성되어 있다.

많은 분들이 알고있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나랏말싸미 중등國語에 달아)...’는 『훈민정음(언해본)』에 수록된 내용이며 『훈민정음(언해본)』은 1459년에 한문으로 되어 있던 해례본의 예의 부분을 한글 번역한 버전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7천여 개에 이르지만, 언어를 기록하는 문자는 30여 개에 불과하다. 그 중에 자기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새 글자를 제정한 일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문자를 만든 창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경우는 훈민정음을 제외하고는 없다. 게다가 새로 만든 문자의 창제 원리와 그 음가와 운용법을 밝히고 그것을 해설한 책을 간행한 일 또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한글 덕분에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발전을 고루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이르러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세종대왕과 주시경 선생님 등 수많은 선조들이 만들어내고 지켜온 한글을 잘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손들에게도 전달 해줘야한다. **KMIF**